

김승석 변호사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
 “명상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자기 알게 되면 세상도 함께 행복”
 16·17면

금주의 법구-〈아함경〉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 애착하게 된다.
 자신을 애착으로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9일) · 주간

제 991호 2014년 5월 7일 수요일

불교, ‘웹툰’ 만나 ‘세상과 소통’

지찬 스님 등 ‘근근한 뉴스’ 창간... 새로운 포교 시도 ‘눈길’

‘웹툰’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콘텐츠 중 하나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재되는 웹툰들은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웹툰으로 전하는 인터넷 신문이 발행됐다. 5월 1일 창간된 ‘만만한 뉴스’ (발행인 지찬)는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만화 작가들에게는 소통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때에에는 여러 지찬 스님, 배중훈, 양경수, 김동범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를 표현하며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만한 뉴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함’ 혹은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라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중 누구나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젊은이가 말하는 불교 △만화(카툰)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 △변화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꾸준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인 지찬 스님은 “젊은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하는 매체인 동시에 불교만화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창간 취지를 전했다.

“웹툰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교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매체가 드문 것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변화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만만한 뉴스는 불교를 만화로 풀어내고자 하는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배중훈 작가는 “10년 넘게 불교 매체에서 만화를 그려왔지만 작가들이 불교 만화가 4명 의기투합 웹툰으로 ‘佛法 전하기’ 나서 젊은층·불교 소통 ‘기대’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개발 중

리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만만한 뉴스가 불교만화 작가들에게는 소통의 장이 되고 신인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창간 멤버는 지찬 스님, 배중훈, 양경수, 김동범 작가로 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인 각각의 색채를 마련, 선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사문제까지 불교적 시각으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앞으로 ‘만만한 뉴스’는 만화뿐 아니라 사진 영화 등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그 영역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또한 만만한 명상·여행·파티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젊은층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간을 기념한 전시회도 마련. 5월 19일~6월 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네 남자의 만만한 카툰전을 연다. (http://manmanhan.tistory.com)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5월 1일 창간한 불교 웹툰 뉴스 ‘만만한 뉴스’의 타이틀. ‘만만한 뉴스’는 새로운 콘텐츠인 웹툰을 통해 불교를 전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려 지찬 스님 배중훈 작가 양경수 작가 김동범 작가

지찬 스님의 ‘사고팔고(四苦八苦)’는 스님의 대표 캐릭터 어라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승려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고충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배중훈 작가의 ‘법구경하세’는 <법구경>의 명구들을 만화로 풀어 독자들에게 소소한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범 작가는 ‘똥개김작가의 너는 아직 푸르다’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양경수 작가는 ‘히어로즈’를 통해 불보살 캐릭터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참회·추모·화합의 1만배 안산시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지역불자들은 5월 24일까지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참회·추모·화합 '1만배'를 진행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 같은 참사,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불교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문 및 추모 행사 잇달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애도하기 위한 국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또한 안산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범종단적 천도 의식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산시 사암연합회(회장 승현, 이하 안산사암련)이다. 안산사암련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참회·추모·화합’의 1만배를 진행한다.

‘참회·추모·화합’의 1만배는 한달 동안 매일 저녁 7시 300배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처음 시작하는 10일은 참회의 300배, 추모의 300배, 나머지 10일은 화합의 400배로 이뤄진다. 1만배에는 안산 사암련 사찰과 신도, 경기지역 포교 사단 등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안산사암련은 합동분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들은 조문객과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비롯해 떡, 과일, 컵라면 등을 제공하며 조문객과 유가족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안산사암련 회장 승현 스님(지장사 주지)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을

잡았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안산시는 공황 속에 있다”면서 “불교 수행인 ‘질’을 통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화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 속에 안타까움과 원망, 연민 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누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분향소 찾아 희생자 애도

안산사암련, 합동 분향소서 참회·추모·화합 '1만배'

부스 설치하고 유가족 봉사 범종단 천도의식 봉행 계획

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범종단적인 천도의식과 추모 법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4월 27일 새벽 6시 20분 안산울림택기념관에 설치된 단원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학생들을 애도했다. 이날 조문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전원이 함께 했다.

조문을 마친 자승 스님은 분향소를 지키며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안산사암연합회 스님들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국가와 지역의 큰 슬픔을 지역사암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은 주민과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사찰은 지역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앞으로 지역의 힘든 일과 대소사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 스님과 의정단,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은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넋을 기렸다. 조계종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도 4월 30일 안산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5월 1일 조문행렬에 동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신성민 기자

부모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대상: 자녀를 둔 아바, 엄마
 2014년 5월 13일(화)~6월 24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20분
 장소: 한마음선원

지혜와 자비의 다스림
학부모 프로젝트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Tel.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은 휴무

세월호 아픔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

서울 조계사 등 5월 6일 법요식 일제히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불기 2558년 봉축 법요식이 5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는 법적으로 꾸며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관하는 봉축법요식은 조계사에서 종정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요식은 일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의 사회로 도량결계(의식, 육법공양(의식, 명교, 명종(의식(28타)으로 시작해 관불 및 마정수기, 헌축, 헌향, 헌다, 헌화,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의 축원, 불자대상 시상,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봉축사, 대통령 축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법 흥부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동진 불교포럼 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텔런트 선우 용어 씨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법요식에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과 가망 상리마넬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김민실장(의식)의 사회로 도량결계(의식, 육법공양(의식, 명교, 명종(의식(28타)으로 시작해 관불 및 마정수기, 헌축, 헌향, 헌다, 헌화, 조계사 주지 도문

991호 INDEX

대행 선사 2주기 추모 다례제 3



종합 2 신행 포교 6
 잇달은 연등 훼손 “차별금지법 필요” 불교·가족 위한 램플스테이

법어문사 피해자 자승 스님 예방 함께 가요 강의실 8
 원효와 의상-남동진 서울대 교수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5
 불교계 ‘나눔’ 현주소와 과제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전주 감천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대법회

기미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이신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 용성조사로 부터 은. 법. 강. 울을 전수 받으신 봉암 대선사 성도 75주년, 사리 500여과 를 출현하신 석가산 장로의 자모 마야성 보살 입멸 1주년이 되는 음력 5월 8일을 맞이하여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서 희생하신 애처로운 고흔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가신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대재를 봉행하므로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경제가 부강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민은 팽목항에 모여 함께 기원하시기를 합장 합니다.



※ 참가 신청 선착순 1000분에게 용성조사께서 지으시고 마과 강사께서 번역하신 귀원정종을 봉암문도회에서 봉정하겠습니다.

*일시 : 2014년 6월 5일 10시 *장소 : 팽목항

주최 : 봉암대선사문도회 주관 : 천도대재봉행위원회

■접수처 : 서래사 051)556-0278 법전사 054)972-5545 불광사 055)364-4747 금선사 033)763-2441
 조계사 053)257-7032 광덕사 041)584-4154 용호사 043)253-7657 비봉사 055)742-0441
 천양사 010-6593-7982 구룡사 054)437-4792

봉행위원장 : 화산당 월인화남 개당화상 / 해산당 해륜화남 배당화상 / 미산당 천강화남 어장화상 / 정산당 청봉화남